





NORTH KOREAN SOCIETY  
in Fashion & Makeup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

박계리 지음



통일부  
통일교육원

# CONTENTS

<b>PART. 01</b>	<b>북한 패션의 변화와 금기</b>	<b>04</b>
	· 2000년대 이전 북한의 패션	13
	· 2000년대 이후의 변화	21
	· 김정은 시대: 김정은, 리설주 스타일 등장	30
<hr/>		
<b>PART. 02</b>	<b>북한 패션의 특징</b>	<b>38</b>
	· 교복문화	40
	· 바지	41
	· 조선옷	50
	· 남성복	52
	· 결혼식 옷차림	56
	· 장신구	62
	· 신발	70
<hr/>		
<b>PART. 03</b>	<b>북한의 화장법</b>	<b>78</b>
	· 화장을 왜 해야 하는가?	80
	· 북한 화장품 산업 현황	93
	· 북한 화장품 분류	95
	· 화장품 생산	98
	· 북한의 패션과 미용을 살펴보며	106



**NORTH KOREAN SOCIETY**  
in Fashion & Makeup

---

북한  
패션의  
변화와  
미래

PART

1



PART  
1

## 북한 패션의 변화와 금기

이번 수업은 북한의 패션과 뷰티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에서는 옷차림, 몸단장, 머리단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북한의 옷차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패션을 통해 우리는 한 개인을,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취향, 생활방식, 예술적 감각,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의식과 철학까지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옷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옷차림을 통해 그 사회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패션은 때로는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합

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위아래가 붙고 가운데 지퍼와 양 가슴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방공복(사이렌 슈트·siren suit)을 1930년대에 직접 디자인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사진 1]**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재빨리 쉽게 입고 방공호로 대피할 수 있는 이 옷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진 1 윈스턴 처칠, 방공복(siren suit)

처칠이 입으면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 작업복을 ‘처칠의 롬퍼스(rompers)’라고 불렀는데 그 옷은 ‘피와 수고, 눈물과 땀 이외에 다른 것은 드릴 게 없다’는 숄선수범과 결전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차림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처칠은 이 옷을 일상복으로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한편, 옷차림은 그 자체로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자유롭고 다양한 옷차림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혼식에 갈 때, 장례식에 갈 때 어떤 옷차림을 하고 갈까 고민하곤 합니다. 이는 옷차림이 그 사회가 암묵적

으로 동의하고 있는 예의범절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옷차림만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옷차림 양식은 같은 국가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여성의 미니스커트와 남성의 장발을 규제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진 2**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위해 자로 무릎 위 치마길이를 재고 있는 모습과 경찰의 장발 단속에 걸려 머리를 자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히피 문화의 유행이 팝음악과 결합되어 전 세계로 퍼지면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미니스커트와 장발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문화를 퇴폐풍조로 규정하고 단속하였습니다. 당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미니스커트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cm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자를 들고 단속을 하였다고 하니 단순히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sup>[사진 2]</sup> 1980년(9월 6일)에 가서야 정부는 이러한 단속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내무부 장관이 단속 중지를 지시하게 됩니다.

전통시대 여성의 한복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발목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매우 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패션 코드로 인식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리가 많이 보이는 것을 짧은 치마라는 패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벗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배꼽을 보이는 것을 벗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배꼽티셔츠라는 패션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 기준은 그 사회가 몸의 각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가와도 연동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니스커트와 남성의 장발 패션을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해서, 남성이 머리를 장발로 길렀다고 해서 그 사람

들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패션에 대한 생각은 변화합니다.

서양에서는 코르셋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양 여성은 사회가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코르셋을 입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문화는 여성의 가는 허리가 아름답다는 미학으로 점점 더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의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코르셋이 여성의 신체를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노브라 패션에 대한 의견은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이처럼 패션을 통해서 그 사회의 젠더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라는 사회의 독특성만큼이나 독특한 패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했던 모더니즘 패션의 동시대성은 작동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도 패션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행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 패션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서도 패션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에서는 패션과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호칭 생

략)이 이야기했다는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람들의 사상정신 상태와 문화생활 수준의 반영입니다.”라는 문장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상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옷차림과 몸단장이 그 사람의 사상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니, 이는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옷이 날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로부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옷이 사람들의 걸모습을 차려주기 위한 치장물만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사상정신 상태와 문화정서 수준, 도덕 상태를 보여줍니다. … 옷은 민족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민족의 력사와 민속전통, 성격과 생활 등 민족의 넋이 그대로 반영된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은례절이요 도덕입니다.”(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발표연구소 김향숙, 「옷차림례절을 두고」, 『조선여성』, 2003.8. 40쪽.)

이처럼 북한은 옷차림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패션은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크

게 변화합니다.

1990년대까지 북한 사회에서는 배급품이 아닌 물건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배급제가 실질적인 유통망으로 작동되고 있을 때에는, 외국 사람들과의 접촉도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건이 북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상류층이나 일부 북송재일교포들 정도를 제외하면 이 시기 북한 주민들은 배급받은 옷을 중심으로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북한 사회 전역에서 소위 ‘사회주의 차림새’를 입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기도 하였거니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옷을 입고 싶더라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1990년대까지는 북한 당국이 공급하는 의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평범한 주민이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한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옷을 입고 싶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집에서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고는 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도 유행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있으나, 북한 사회가 제안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북한 내 금기의 범주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2000년대 이전 북한의 패션

북한 사회가 우리와 다른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복장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옷차림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옷차림과 몸단장이 그 사람의 사상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사회주의 차림새’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전, 배급제를 통한 통제가 가능할 때는 이 금기에 대한 규제도 보다 엄격했습니다.

1988년도에 제작된 북한 영화 「겉멋이 들어」를 보면,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여대생 주인공이 패션 화보를 보면서 어떻게 옷을 입을까 궁리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나팔바지에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영어 글자가 크게 쓰인 점퍼를 입고 대학교로 향하죠. **[사진 3]** 그런데 학교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주인공은 학교에 도착해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 옷차림이 별스럽게 보이니?” “그렇게 입으니 우리 미감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나팔바지와 잠바는 좀 별스럽지 않니?” 친구들은 수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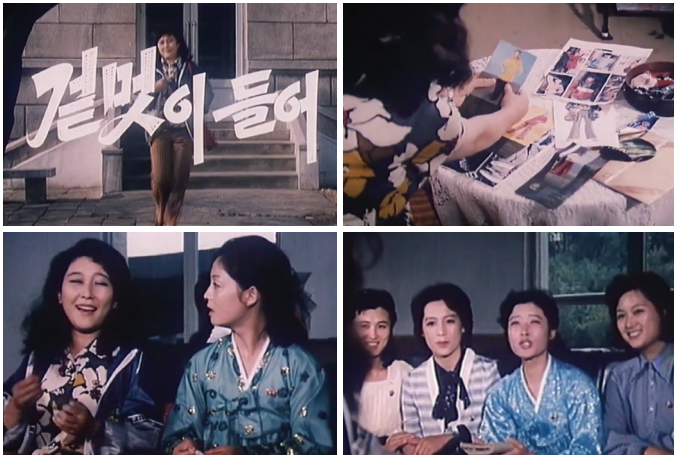


사진 3 영화 「결맞이 들어」(1988.)

전에 빨리 다시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주인공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아무래도 집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초조해진 주인공에게 친구는 자신의 집에 가서 “내 옷으로 갈아입고 와. 빨리. 시간이 없어” 하면서 키를 내어 줍니다. 자기 딸의 친구가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랐던 친구 어머니는, 주인공이 바지를 입은 모습만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남자가 집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알리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옷차림이 바로 북한 사회가 원하는 ‘사회주

의적 옷차림’입니다. 물론 친구들 중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친구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사회가 금기시하는 옷차림이 있는데요.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스타일의 치마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중심에서 5cm 정도 내려오는 것이 기본이지만 형태와 재질에 따라 2~3cm 더 짧거나 길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마 길이가 짧은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긴 치마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발목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길이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여성 옷의 경우 가슴 부분이 많이 파인 옷이나, 타이트해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등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 단속했습니다. 여성의 몸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옷품 여유는 6~7cm 정도”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지 않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제국주의자의 부르조아 문화”를 유포하는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속은 누가 할까요? 북한 사람들 모두는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소년단에

1 본사 기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여성들의 나쁜 옷차림」 『조선여성』, 2011.8. 53쪽.



가입되어 있고, 중학교 4학년(만14세)부터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소속이 됩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직맹,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민반 등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 수시로 옷차림을 단속합니다. 학생들은 청년동맹에서 단속하고, 옷차림이 이상하면 부모 직장으로 통보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앞서 설명한 모든 옷차림의 금기는 북한 사람들에게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조선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북한의 김일성대학교로 연수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 여학생은 보란 듯이 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단속에 걸렸는데, “총련입니다.”라고 말하자 바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참고

서양에서도 여성들에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옷차림 양식이 있었 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고위층 여성들에게 예의를 갖춘 여성 옷차림이란 여성성이 강조된 옷차림이었습니다. 가는 허리, 풍성한 가슴 등 S라인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이 강조된 실루엣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코르셋이라는 여성들만을 위한 보정 속옷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르셋은 몸을 꼭 죄는 망 소재의



사진 4 제2차 세계대전 중 유틸리티 클로스를 입어보고 있는 여성(1942.)

속옷으로 18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여성들은 허리 모양을 내고 복부를 누르기 위해 이것을 드레스 안에 입고 끈을 졸라매야 했습니다. 여성성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적 요소로 읽힙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서양 옷차림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치마 길이는 금기의 항목이라기보다는 유행 요소였습니다. 유행 요소에는 경제난이라는 문제가 결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옷차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각진 어깨, 테일러드 슈트, 짧은 스커트로 구성된 밀

리터리룩이 등장했는데 기능이 강하고 실용적이어서 여성 패션으로도 유행했습니다. 전쟁기간 중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자, 영국은 1941년 유틸리티 클로스(utility cloth)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사진 4]** 물자 부족으로 인해 옷감을 절약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장식적 디자인을 없앴고, 스커트 길이와 폭의 최대 치수, 주름의 수까지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고 스커트 폭도 좁은 타이트스커트가 유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었던 옷차림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여성들도 남성적인 밀리터리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패션 라인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인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Dior)는 뉴룩(New Look)을 발표합니다. 어깨는 둥글고, 가슴선은 높으며,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엉덩이 부분에는 패드를 넣어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 스커트는 무릎 아래 길이로 넓게 펼쳐지게 한 옷차림입니다. 여성의 S라인을 강조하는 패션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션 디자인은 파리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유행했습니다. 이 시대 여성들에게는 뉴룩의 영향을 받은 허리를 강조한 원피스 드레스, 허리가 들 어간 재킷 슈트들이 유행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한 치마 길이는 무릎 밑이 었습니다. 특히 디오르**[사진 5]**가 선보인 '햄 라인'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그는 여성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마 길이는, 땅에서 15 1/2인치 올라간 스커트 길이라고 주장하였고,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은 이들 남성 디자이너 들의 옷이 여성의 인체나 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성이 활동하기에 불

편한 디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샤넬은 이들 디자인에 맞서,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안한 카디건 슈트를 발표하였습니다.**[사진 6]** 샤넬 디자인은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단순하고 입 기 편한 옷을 디자인하겠다는 샤넬의 방향은, 여성성의 강조라는 명분 아래 답답한 속옷을 입어야 했고, 장식성이 많은 옷을 입어야 했던 여성의 몸을 해 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샤넬은 1960년대에 등장한 미니스커트의 열풍도 강하게 비난하면서 스커트 길이 줄이기를 거부하며 무릎 밑 길이를 고수했 습니다. 간단하고 입기 편하며 활동적이면서도 여성미를 잃지 않기를 바랐 던 샤넬 스타일은 이 시기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던 당시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5 모델의 옷을 수정하는 디오르



사진 6 코코 샤넬, 카디건 슈트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했었기에, 옷차림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당국의 단속도 있거니와, 배급받은 물품 이외의 물건을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가 유행을 따르다고 해도 '사회주의 생활양식' 기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 안에서 움직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젊은이들에게도 자신의 눈에 멋져 보이는 사람들의 패션을 따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패션 리더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북한 영화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연예인은 여배우 '오미란'이었습니다. **[사진 7]** 당시 북한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화 중 하나가 <민족과 운명> 시리즈였는데요. 북한은 이 시리즈를 통



사진 7 오미란

해 인민들을 교양하고자 했는데, 1992년부터 제작된 <민족과 운명> 시리즈는 2006년까지 총 70편이 제작되었고, 그중 제8부, 제9부, 제10부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오미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했는데요. 오미란

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미란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당시에는 북한 전역에 장마당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터라 2000년 이후처럼 유행이 확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의 출근 복장은 대체로 정장이나 한복이었으며, 여성 정장은 투피스 정장 형태로 화려하지 않은 부드러운 색상이 선호됐습니다.

## 2000년대 이후의 변화

1980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남성의 경우 인민복, 작업복, 양복이 백화점과 국영상점을 통해 공급됐고, 여성의 경우 치마저고리와 연한 단색 투피스가 장려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색깔의 양장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디자인상에 큰 변화는 없었죠. 학생들도 국가가 공급한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의류가 장마당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국제 의류가 밀려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옷차림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 내부에서는 패션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패션’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해외체류자 등 일부만을 위한 개념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패션’에 관심을 갖는 층이 북한 도시에 폭넓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패션의 변화 주기도 이전에 비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되는 의상들의 유행 주기가 이러한 변화를 추동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장마당을 통해 중국과 한국 등의 외부 의류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구제품이라고도 부르는 중고제품도 북한에 많이 들어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선 구제품 매매가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 의류를 그대로 모방해 북한 내부에서 똑같이 만들어 파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모방품들을 가공옷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가공옷은 해외 구제품보다 질은 떨어졌지만,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고 북한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반에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소량으로 옷을 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성가공’, ‘청진가공’ 등 전문적으로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정품의 20% 정도 가격으로 가공품이 만들어졌으나, 이후 공장 제품의 품질 차

이에 따른 가격차도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제품부터 중고품, 북한 내부의 평성가공품, 청진가공품 등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라도 다양한 가격대로 상품이 매매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북한 사회 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패션에 대한 유행이 확대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국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에 나오는 옷을 꼭 집어서 가공품으로 제작해 입을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진 것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패션의 폭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 만드는 가공품의 등장은, 북한의 패션 사업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몇 종류의 배급품을 대량 생산해 왔던 공장에서 디자인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옷감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의류를 똑같이 모방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부 패션의 패턴을 꼼꼼히 익히고, 직조나 옷감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패션 스타일 중에 북한 사람들의 취향을 보다 자극하는 옷차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이하 호칭 생략)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만든 북한제 옷들도 품질이 많이 향상되기 시작했다고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옷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옷에 대한 평가도 점점 좋아져 옷을 자신의 취향과 체형에 딱 맞게 맞춰 입는 것이 가장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갖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와의 거래가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옷과 같이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공간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환경이 활발히 변화했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옷차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옷은 우리 여성들의 몸에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얼굴과 목이 약간 보이고 손이 가볍게 보이며 몸 전체가 옷으로 가리워지게 되어 소박하고 외유내강한 우리 여성들의 성격상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극히 일부 여성들 속에서는 제 나라, 제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며 조선여성들의 몸에 꼭 어울리는 조선옷을 입지 않고 우리 식이 아닌 남의 식으로 입고 다니고 있

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추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색하고 보기 흉한 옷차림을 하고 거리에 나섬으로써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자식들이 옷을 별다르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새것에 민감하니 그러겠거니 하여 스쳐보내고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우리 여성들은 옷차림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자신들부터가 우리 식의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 입고 다니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식, 남의 풍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새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식,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선군시대를 더욱 빛내어나가도록 합니다.”(평천구역 북성1동 75반 최정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옷차림을 우리 식대로 하자」, 『조선여성』, 2004.12. 50쪽.)

어머니들은 젊은이들의 흉한 옷차림을 보고도 자식들이 ‘새것에 민감’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가정에서 자식들의 옷차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추세라고 하여 지나치게 꼭 달라붙는 샤쯔나 치마는 우리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으며 조잡하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새겨진 옷은 고상하지 못하다.”(평양시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리정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여름철 옷차림을 다양하게 하자」, 『조선여성』, 2006.6. 44쪽.)

“겨울철 옷차림을 잘하고 다니는 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길게 내리덮은 코트나 불필요한 장식이 많은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특히 추세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다니는 현상은 다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 풍조를 흐리게 하는 그릇된 현상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자를 꼭 눌러쓰고 목도리를 불품없이 둘둘 말고 다니는 등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옷차림을 덮어놓고 본따려는데 그 중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풍습에 맞지 않는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자본주의사회의 옷차림 형태들도 있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풍조를 흐리게 하는 요소들도 있다.”(본사 기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겨울철 옷차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여성』, 2006.12. 44쪽.)



사진 8 평양의 여름 패션

2006년도에 『조선여성』(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민주녀성 동맹’(이하 여맹)의 공식 기관지)에 실린 2편의 기사를 보면 해외에서 새로운 옷차림이 들어와 북한 사회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걱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옷차림을 덮어놓고 본따려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풍습에 맞지 않는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자본주의사회의 옷차림 형태들도 있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풍조를 흐리게 하는 요소들도 있다.”는 언급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 장식이 많은 옷을 입는 북한 주민들의 등장을 알려줍니다.<sup>[사진 8]</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책도 통제와 단속 일변도에서 ‘다

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사진 9]**

옷전시회(패션쇼)를 열기 시작한 북한은 '2000년도 조선옷전 사회'에서 치마저고리를 비롯해 양복, 달린옷(원피스), 나넌옷(투피스), 셔츠, 반외투, 긴외투 등 92점의 여성 옷을 선보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매년 '전국조선옷전시회'를 열어 새로운 치마저고리, 일삼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10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여성용 바지 의상도 소개해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9** 다양한 북한 패션(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외국문출판사, 2018.4.)



**사진 10** 은하수관현악단  
(Youtube @Billy Zhu)



**사진 11** 모란봉악단  
(Youtube @Moranbong Band HD)

최근에는 구두, 핸드백 등을 옷차림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에게 '세련되면서도 점잖은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과 달리 무대 예술인들은 옷차림의 금기에서 보다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옷차림은 전통적인 관현악단의 국제적인 옷차림의 예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를 함께 구성하는 배합관현악단에서는 전통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전통적인 조선옷(한복의 북한말) 차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10]**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전자악단인 모란봉 악단은 팔소매가 없는 드레스나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 **[사진 11]** 보다 짧아



진 치마 길이 등 확연히 변화된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울에 온 삼지연관현악단의 핫팬츠, [사진 12] 그리고 이후에는 배꼽이 드러나는 의상 등



사진 12 삼지연관현악단

무대 예술가들의 옷차림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한국의 아이돌 한류음악 패션을 알고 있는 북한 젊은 층의 욕망이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대 예술의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민족적 형식’만을 강조하던 흐름에서 보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정은 시대: 김정은, 리설주 스타일 등장

이처럼 변화하는 북한 패션의 흐름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평양을 방



사진 13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김일성 주석과 부인 김성애(1994.6.)



사진 14 김정은과 팔짱 낀 리설주(2012.7.25.)



사진 15 바지를 입고 있는 리설주

문했을 때 등장했던 김일성 주석(이하 호칭 생략)의 부인 김성애 여사(이하 호칭 생략)는 북한 사회에서 권장하는 고운 푸른색 조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13] 그러나 2012년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여사(이하 호칭 생략)는 첫 등장부터,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권장했던 ‘조선옷차림’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릉



사진 16 김정인과 동행한 리설주(2017.10.29)

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는 자연스럽게 김정인의 팔짱을 낀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sup>[사진 14]</sup>

노란색 물방울무늬 원피스와 하얀색 카디건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김정인의 현지 시찰에 동행한 적도 있으며, 바지를 입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sup>[사진 15]</sup> 리설주는 북한 사회가 권장하지 않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 등을 입기도 하고,<sup>[사진 16]</sup> 목걸이와 북한 여성들이 잘 하지 않는 귀걸이에 브로치까지 모두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설주의 패션은 금기를 어긴 옷차림이라는 인식보다는 세련된 모습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북한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 외부의 유행이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내

부로 파급되었으나, 이제는 북한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북한 내부 인물의 옷차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후 리설주의 옷차림은 점차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정착되어 가는 듯합니다. 북한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조금씩 무릎 윗선으로 변모해 갔지만, 리설주 옷차림의 치마 길이는 무릎 밑으로 손가락 2개 사이의 길이로 정착되어 갑니다. 이는 흔히 ‘샤넬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앉았을 때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전통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선호하던 치마 길이입니다. 리설주가 자주 입고 등장하는 원피스 차



사진 17 세련된 옷차림의 리설주

림은, 허리 라인을 몸의 허리 위치보다 윗부분에 재단하는 형식을 선호해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특징 또한 보입니다.**[사진 17]**

2019년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당시 선보인 리설주의 조선옷(한복)은, 금박과 자수 등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면서도 잔잔한 포인트 장식을 옷감에 드리우고 고운 색감으로 단아한 이미지를 연출해내었습니다.**[사진 18]** 남북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갔을 때에는 백두산이라는 현장성을 감안하여 김정숙 여사는 정장까지 차림으로 현장성에 맞으면서도 격식에 맞는 차림을 한 것에 비해, 리설주는



사진 18 한복 차림의 리설주



사진 19 남북한 정상 내외의 패션

백두산 천지에서조차 정장치마를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 19]**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여전히 바지차림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옷차림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보게 되는 리설주의 옷차림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옷차림입니다. 리설주와 북한 당국 모두가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최근 옷차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옷차림의 도덕적 기준을 따르면서도 구두와 가방까지 세밀하게 패션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품 가방을 당당히 들기도 합니다.

리설주의 옷차림과 함께 김여정 제1부부장(이하 호칭 생략)의 옷차림도 눈에 띄입니다. 김여정의 옷차림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합니다. 김여정은 스스로 정치적·행정적 활동을 하는 여성입니다. 따라서 김여정은 리설주와는 달리 항상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휘장을 옷에 달고 나타납니다.

그녀의 패션은 현재 북한 사회가 원하는 ‘일하는 여성’의 전형적인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설주와 다르게 원피스를 입은 적이 없으며, 북한의 대표 예술인인 현송월처럼 화려한 털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사진 20]** 언제나 단정한 H라인 투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차분한 컬러의 투피스 안에 다양한 블라우스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블랙 라운드 블라우스에는 잔잔

한 스파클 장식을 곁들여 화려함을 연출합니다. 흰색 블라우스는 목 부분을 스카프 형식으로 디자인해 목걸이 대신 변화를 주고, 진주와 같은 장식을 통해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한 세련미를 연출하곤 합니다.<sup>[사진 20]</sup>

김정은 바로 뒤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며 보좌하면서도 그 위치에 걸맞게 바지를 입고 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김여정은 북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하는 여성 패션을 리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김여정의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하는 여성들의 변화하는 패션 감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 20 화려한 털목도리를 하고 서울에 온 현송월



사진 21 단정한 세련미의 김여정





**NORTH KOREAN SOCIETY**  
in Fashion & Makeup

---

북한  
패션의  
특징

PART

2



## 2

# 북한 패션의 특징

### 교복문화

북한 사람들은 중등학교를 마치면 대학교나 군대에 가거나 당국이 배치해준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대학교에서도 교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은 인생의 오랜 기간을 교복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학생들은 교복으로 주로 치마저고리를 입거나 투피스를 입습니다.<sup>[사진 22]</sup>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교복제도 안에는 당연히 옷차림 규제가 있습니다. 교복치마의 길이, 머리 스타일 등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교복에서 규제하고 있는 치마 길이는 일반

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치마 길이와 같습니다. 무릎 아래로 두 손가락만큼 내려오는 길이로 입는 것이 대체적인 규정인데, 이 길이는 치마를 입고 앉았을 때를 고려한 길이였습니다. 그러나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학생들은 일부러 치마를 짧게 고쳐서 입는데, 그러다 단속에 걸리면 그 사이에 키가 컸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릿단을 접어 짧은 치마처럼 보이게 입다가 단속이 오면 접었던 허릿단을 푸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니, 이는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 22 평양의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교복으로 치마저고리를 입거나, 투피스를 입는다.

### 바지

현재는 북한 여성들도 공식적으로 바지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설주가 바지를 입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모습이 조선

중앙TV에 보도됨으로써 여성들의 바지 차림은 공식적으로 허용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였던 2005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지는 여성 옷차림에서 금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쵸아 생활 양식을 퍼뜨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얼룩덜룩한 옷과 특히 녀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다.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은 우리의 민족적 정서를 흐리게 하고 사회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분위기를 좀먹게 한다. 우리 식이 아닌 옷차림을 넘겨다보거나 본뜬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최명숙,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우리 식의 옷차림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녀성』, 2005.9. 36쪽.)

2005년에 이런 글이 발표된 것은,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현상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 여성들도 직장에 출근해서 각자 일을 할 때는 바지를

입어도 됩니다. 직장에서는 작업복이라는 것을 입는데, 출근을 한 후에 작업복으로 갈아 입는 것이지요.

여성들에게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1980년대 초까지는 잘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경제가 안 좋아지자 규제가 느슨해졌습니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서는 여자가 바지를 입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난의 최고조인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장마당인데,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노동이 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바지는 일하기에 보다 편리한 복장이었습니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문제가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입지 말라고 옷차림을 단속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배급제가 사실상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옷차림에 대한 단속은 전반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이 암암리에 진행되었을 때에도, 평양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은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이라는 도시가 갖는 상징성과 권위는 평양 내에서의 ‘사회주의적 옷차림’에 대한 강고한 기준이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중요한 공식행사나 김일성이 사망한 7월의 ‘공식애도기간’ 등에는 바지를 착용한 여성은 여전히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바지 착용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이처럼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바지 차림 유행이 일어났습니다. 여맹규찰대의 단속을 피해 1990년대는 나팔바지, 2000년대에는 일자바지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치마 안에 보이지 않게 바지를 걸어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 치마를 갖고 다니다가 단속이 보이면 바퀴 입기도 했다는데요. 규찰대의 단속 시기가 되면 조심하면서 바지를 입는 여성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 참고

북한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와 해제는 여성권의 향상과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패션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년 파리 경찰청은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후 프랑스 여성들은 ‘바지’를 입기 위해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된 사회였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 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라는 구절(신명기 22장 5절)이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이던 프랑스는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라고 받아들여졌고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바지’는 남성의 복장이었고, 따라서 여성은 입을 수 없는 옷이 된 것입니다. 1800년에 프랑스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이는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 행위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은 이러한 가톨릭 문화뿐만 아니라, 남성적 관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몸에 대한 시선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남성들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면, ‘바지’의 특성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여성의 허리 아래로 유도되어, 남성들이

여성의 성적인 신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바지를 입은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정숙치 못한 여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바지를 입는 행위'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었을 때의 실용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비난이 두려워 스스로 바지 입기를 거부했던 프랑스 여성들은, 프랑스의 산업 발달로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되자 '바지'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바지'는 이미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쟁취하려는 여성들의 모습은, 단순히 '바지를 입는다'는 행위를 넘어 남성들이 사회 내에서 쥐고 있는 상징적 권위를 쟁취하려는 여성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는, '여성의 바지 착용'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나 예술가, 배우들을 중심으로 남성처럼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명한 의상디자이너였던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이 여성들을 위한 '바지'를 디자인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움직임을 통해 '바지'를 패션의 다양한 옷차림 중 하나로 인식시키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바지'는 활동성과 독립성이 강한 여성을 상징하는 옷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법적으로 '바지' 착용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바지'를 입을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을 얻어낸 것입니다.<sup>2</sup>

2 광노경, 「바지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 프랑스 여성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46, 2014.6. 185~202쪽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의 바지 착용'에 대한 지침이 변화합니다. 전면적 금지에서, 허용하되 단정하게 입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여성의 바지 착용을 허용한 것이지요. 이는 북한 사회 안에서 달라진 여성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사진 23, 24\]](#)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의 가속화와 함께, 여성을 경제 주체로 등장하게 만든 일련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장마당의 발달로 옷을 구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졌고, 장마당과 집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효용성이 높은 바지 착용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진 23 양산과 모자로 멋을 낸 북한 여성



사진 24 바지 차림의 북한 여성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2007년 기사 「여성들의 옷차림(가을, 겨울)」(잡지 『조선여성』, 2007.11. 31쪽.)에서는 가을철 옷차림에 등장하지 않았던 바지 차림이, 겨울철 옷차림에는 치마 차림과 더불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성과 바지 차림의 허용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같은 잡지에서 ‘제7차 전국조선옷전시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계절성이 강조된 옷차림이 아닌 ‘아름답고 맵시 있는’ 여성 옷차림으로서 치마 패션과 함께 여성의 바지 패션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바지 옷차림’이라는 문장 앞에 “여성들의 활동에 편리한”이라는 표현을 삽입하고 있어서 변화된 젠더 문화와 바지 패션의 허용이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3</sup> 『로동신문』에도 여성의 단정한 바지 차림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2009년도 기사 「옷차림을 편리하고 보기 좋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성들의 단정한 바지나 남자들의 T셔츠도 옷차림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경우 천한 색으로 보기 싫게 해입고 다

3 「아름답고 맵시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옷차림」 『조선여성』 2009.11. 28~29쪽.

니지 말아야 하며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고운 천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입는 것이 좋다. 여성들의 바지는 그 형태에서 우리 여성들의 몸매에 맞아야 한다. 아래몸에 꼭 달라붙고 끼우는 바지, 아래단이 넓은 나팔바지는 우리 식이 아니며 우리 여성들의 몸매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과 위생학적 견지에서도 좋지 않다. 진바지나 치마형식의 바지는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여성들의 미감에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여성들의 바지색갈은 어두운 것보다도 계절과 나이에 어울리는 밝으면서도 고운 색갈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바지 기슭을 걷어올리는 것, 허리부위가 꼭 조여지지 않고 아래로 처지는 것, 허리단을 귀찮여 놓는 것, 역시 아름다운 우리 여성들의 외모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활풍조에 맞지 않는다.”(장철구평양양상업대학 박철, 「옷차림을 편리하고 보기 좋게」, 『로동신문』, 2009.8.9.)

이 기사의 흥미로운 지점은 다양한 디자인의 바지 옷차림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의 단정한 바지나 남자들의 T셔츠도 옷차림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라는 문장도 시선을 끄니다. 여성의 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정한’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붙여 놓았지만, 여성의 바지 패션이 북한 사회의 옷차림 문화를 보

다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단정한 바지 차림은, 고운 천에 밝고 고운 색의 바지,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바지 차림입니다. 금지하고 싶은 바지 차림은 나팔바지, 청바지, 치마 형식의 바지, 바지 기슭을 걷어 올리는 것, 허리부위가 꼭 조여지지 않고 아래로 처지는 것, 허리단을 귀찮이한 바지 차림입니다. 금지하고 싶은 바지 차림에 대해 『로동신문』에서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형식들의 바지가 북한 사회에 등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유통 등을 통해 북한 외부의 유행이 북한 내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시대를 맞아 등장한 리설주는 바지를 입은 모습을 ‘조선중앙TV’에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평양 백화점에서 나팔바지도 공식적으로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선옷

반면, 조선옷(한복)을 입는 것은 권장됩니다. 검정 치마에 흰색 저고리가 양장 교복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조선

옷은 민족의 미감이 전승된 것이라고 여겨 착용을 권장합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는데, 여성들의 경우 중요한 국경절 등의 행사와 결혼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옷을 많이 입습니다. 양장의 경우에는 화려한 무늬의 옷을 단속하지만, 조선옷은 화려한 컬러, 화려한 문양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름에 입는 조선옷은 소매 부분이 시스루 형태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름은 덥기 때문에 얇은 옷감을 사용하다보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금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여름용 조선옷의 예로 선전하기도 합니다. 길이 또한 무릎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다양하게 허용됩니다. 단, 한복 밑에 고무신은 신지 않고 하이힐을 신는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사진 25 화려한 무늬의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

여성 양장옷에는 다양한 금기가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옷에는 금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sup>[사진 25]</sup> 이는 조선옷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게 하려는 정책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양장에서 화려한 문양의 절제를 요구하는 대신, 조선옷에



서는 이 부분을 열어줌으로써 전통 한복의 현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과 다른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패션 리더들에게는 조선옷 안에서 이러한 욕망을 분출할 수 있게 열어 놓음으로써, 단순히 정책 당국의 권장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조선옷을 즐겨 입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 남성복

여성복과 달리 남성복에는 여전히 유행의 흐름이 자주 바뀌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 남성복 유행은 최고지도



사진 26 카키색 복장의 김정일(오른쪽)

자의 패션 따라하기가 큰 유행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김정일이 입었던 인민복 차림이 장마당에까지 퍼져 대유행을 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인민복’이라고 부르는 옷 스타일은 활동

하기에도 매우 편해서 남성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일이 자주 입었던 인민복은 카키색입니다.<sup>[사진 26]</sup> 특히 이 카키색 인민복이 남성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했습니다. 카키색은 군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의미로, 북한 사회에서의 군인들의 위상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북한 남성들은 카키색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패션은 어떨까요? 김정일도 인민복을 즐겨 입곤 하는데, 주로 입는 인민복은 김정일이 주로 입던 앞에 지퍼가 달린 인민복이 아닌 김일성이 주로 입던 인민복 차림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사진 27]</sup>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했을 때에도 평소 즐



사진 27 할아버지 김일성(오른쪽)의 인민복 스타일의 김정일





사진 28 줄무늬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사진 29 밝은 톤의 회색 줄무늬 인민복



사진 30 <김일성 김정일 색조각상> 금수산 태양 궁전, 2015

겨 입던 지퍼 달린 카키색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김일성이 즐겨 입던 단추 달린 인민복을 김정일이 전혀 입지 않았은 것은 아니나, 사후에 만들어진 김정일 태양상이나 색조각상에서 보듯, 사후 김정일을 상징하는 옷차림은 지퍼 달린 카키색 인민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일 스타일의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인민복 차림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인민복 차림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처럼 김정은은 3대 세습이라는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이미지를 계승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만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즐겨 입는 인민복 차림은 김일성과 양식은 같으나 김정은은 옷감 패턴에서 수직선 줄무늬가 보이는 옷감을 선택해 젊은 지도자의 패션 감각을 선보였습니다.<sup>[사진 28]</sup> 특히 밝은 회색 바탕에 수직선 줄무늬 스트라이프 옷감에 가죽색 브라운 신발로 코디한 인민복 패션을 보면,<sup>[사진 29]</sup> 그가 김일성 패션을 모방하는 전략적 토대 위에 자신만의 패션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체형이 큰 김정은이 밝은 옷감을 사용하고, 줄무늬까지 들어간 옷감을 사용한다면 눈에 더 확 들어오겠죠. 김정은이 패션을 연출할 때는 이처럼 보여지는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신년사를 하는 김정은을 보면 인민복 차림도 있습니다만, 김일성이 평소 즐겨 입는 넥타이를 한 양복 정장 차림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공식적 옷차림은 넥타이를 맨 양복 정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sup>[사진 30]</sup> 김일성의 영정, 태양상 이미지 및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작된 김일성 색조각상에서도 일관되게 넥타이를 한 양복 정장 차림입니다. 양복 정장에서도 세로줄 줄무늬 옷감을 착용한 바 있으며,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 결혼식 옷차림

그렇다면 남녀의 결혼식 옷차림은 어떨까요? 북한 결혼식에서 여자는 조선옷을 입고 남자는 군복을 입는 경우도 있으나, 점차 양복 차림이 관례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결혼식 규제 관련 글들이 발표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극도로 사치하고 허례허식으로 가득찬 생활을 결혼식과 같은 계기에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을 현

대적인 것으로 류행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퍼뜨리고 있다. … 신랑, 신부의 옷차림과 몸단장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검소하게 해야 한다. 신부의 머리 우에 요란스러운 꽃장식을 하거나 우리 민족옷이 아닌 차림을 하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의 꽃장식은 결혼식의 표시로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정도 다는 것이 좋다. … 여러 대의 차들을 끌어들이고 화려한 치장이나 하며 멋따기 놀음을 하거나 진탕치듯 식량을 낭비하는 것은 부르조아지들의 허례허식이다.”(「<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결혼식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자」, 『조선여성』, 2006.7. 50쪽.)

“일부 여성들의 머릿속에 낡은 사상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하여 결혼식에서는 아직도 뒤떨어진 관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약혼식을 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 본인들 사이에 약속이 되면 따로 <약혼식>을 하거나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 … 결혼식 풍습에 남아있는 낡은 관습은 또한 결혼 첫날에만 입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하여 요란스럽게 갈아입는데서와 신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면사포를 쓰고 치마를 땅에 칠칠 끌리도록 입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 우리 여성들은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의 특성을 잘 알고 결혼식 옷차림을 고유한 민족 옷차림으

로 단장하고 나섭으로써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평양시 중구역녀맹위원회 부위원장 리효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결혼식에서 남은 습성을 없애자」, 『조선여성』, 2004.9. 52쪽.)

이러한 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점점 호화로워지는 결혼식 풍속을 ‘부르쵸아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 규정하고, 신랑 신부의 결혼식 옷차림을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목소리는 그들이 걱정스러워하는 새로운 결혼식 풍속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진 31 화려해진 웨딩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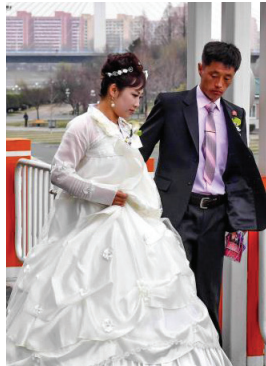


사진 32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양복차림의 북한 신랑 신부

앞의 글에서 관심이 가는 문장은 “결혼 첫날에만 입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하여 요란스럽게 갈아입는” 현상, “신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면사포를 쓰고 치마를 땅에 칠칠 끌리도록” 입는다는 것, “신부의 머리 우에 요란스러운 꽃장식을 하거나 민족옷이 아닌 차림을 하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다.”



사진 33 조선옷(한복)을 차려 입은 북한의 신랑 신부

라는 문장입니다. 민족옷이 아닌 신부의 옷차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흔히 입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결혼식 날 신부가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고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약혼식까지 하는 일련의 결혼식 문화는 “부르쵸아지들의 허례허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북한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림 사진 31, 32]

현재는 남한처럼 웨딩드레스를 대여해주는 곳도 생겼고, 웨딩 사진을 찍는 곳에서 드레스를 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사에도 언급되는 것처럼 결혼사진을 찍을 때 머리에 꽃 장식을 하는 패션이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들은 옷을 여러 벌 교체하여 입으면서도 남성은 양복 정장만 입었던 것에서 변화하여, 최근에는 신랑도 정장 외에 조선 옷도 입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sup>[사진 33]</sup> 다음 기사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조선옷이 주로 여성들의 옷으로만 권장됨으로써, 조선옷 패션 유행도 여성옷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곤 했던 것에서 변화하여, 이제는 남성용 조선옷의 패션도 자극을 받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즈음 모란봉과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한 수도의 경치 좋은 곳에서는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신부들과 더불어 조선바지 저고리 차림을 한 신랑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평양민속공원 강사 리명옥 동무는 올해에 들어와 조선바지 저고리 차림을 하고 이곳을 찾는 신랑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면서 말했다. ... 올해에 있는 제13차 전국조선옷전시회를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자랑-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옷>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대체로 조선치마저고리가 많이 전시되었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남자들의 기본민족옷차림인 바지저고리와 조끼, 두루마기와 같은 여러 가지 민족옷들이 많이 출품되어 인기를 모았던 것이다. 오늘날 각지에서 전통적인 조

선바지저고리를 민속명절이나 국가적 기념일, 생일날이나 결혼식날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즐겨입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본사 기자 김치곤,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 『로동신문』, 2015.11.26.)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북한 사회에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일부 사람들의 결혼 문화가 호화롭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우리 결혼 문화처럼 결혼 사진을 특별히 연출해 찍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만수대 예술극장이 웨딩 사진 촬영의 단골 장소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때 신부들은 머리에 안개꽃 같은 화려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도 쌀과 같은 현물 대신 현금을 부조로 내는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음식 대접도 점차 호화로워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 이후부터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 장소를 집이 아닌 식당이나 결혼식장으로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텔 결혼식도 등장하였고, 해양관 같은 곳도 선망하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그

러면서 남한처럼, 결혼식 동영상 촬영 전문가, 결혼식 상차림 전문가, 결혼식장, 웨딩드레스 대여점 등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 신혼부자들의 결혼 문화가 남한 결혼 문화와 점차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젊은 엘리트들과 이들의 부모인 신혼부자들의 결혼식 문화에 대한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남한처럼 결혼 사업으로 발전하게 될지 주목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 장신구

이번에는 북한의 장신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옷차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장신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브로치를 달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지요. 물론 장신구는 패션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2000년 김정일과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미 국무장관

의 회담이 있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올브라이트 장관의 브로치에 주목하였습니다. 별, 나비, 거미, 악어 등 갖가지 모양의 200여 개의 브로치를 소장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브로치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사람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sup>[사진 34]</sup> 2000년 10월 23일 김정일과의 첫 만남 때 올브라이트 장관은 적대국 방문 때 그녀가 관례적으로 다는 성조기 브로치를 하고 나왔지만, 다음 날 만찬석상에서는 하트 모양의 브로치로 바꾸었는데,<sup>[사진 35]</sup> 이는 김정일과의 당시 회담이 만족스러웠다는 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000년 6월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녀는 햇살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나타났습니다.<sup>[사진 36]</sup> 이 브로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뜻



사진 34 방북 시 다양한 브로치를 선보인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사진 3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김정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 2000.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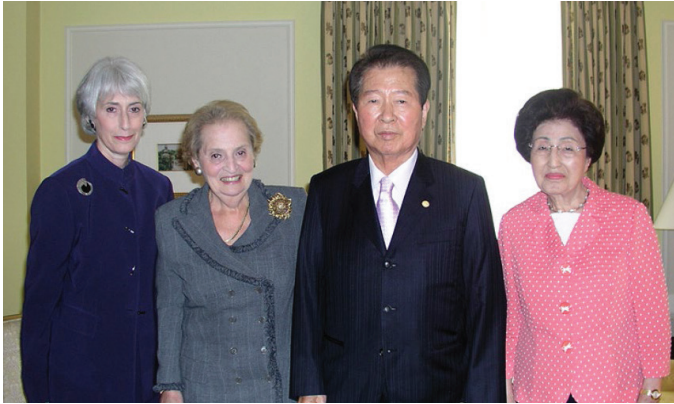


사진 36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햇살 모양의 브로치

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어려운 한자 성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은 정치인의 중요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장신구를 몸에 지님으로써 특별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장신구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은 상의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브로치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의 상의에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사진 37] 김정은과 같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상의에서 김일

성·김정일 초상휘장이 보이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사진 38] 즉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백두혈통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오로지 김정은과 그의 아내 리설주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북한 사회의 최고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지 않음으로 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들 이외의 북한 인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옷에 장식적인 브로치를 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신구라는 것은 그 쓰임 자체가



사진 37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지 않은 김정은 리설주 부부



사진 38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단 김여정



사진 39 브로치와 목걸이로 멋을 낸 리설주

사람들의 시선을 의상에서 해당 장신구로 먼저 이동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인트를 주어야 할 브로치를 이미 달고 있기에, 다른 브로치를 하나 더 달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먼저 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북한 사회 내부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회장은 모두가 달고 다니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다른 브로치가 갖는 특수성이 시각적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김일성·김정일 초상회장보다 다른 장식에 먼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미지

전략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선 처리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은 브로치를 잘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여정의 경우에도 브로치 장식을 하고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리설주의 경우, 김일성·김정일 초상회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가슴에 브로치로 장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진 39] 김정은의 아내로서 등장했던 초기에는 브로치에 눈에 띄는 목걸이를 하였으나,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 우리측 구역에 방문했을 때는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첫 등장해 공식적으로 남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사진 40 남북정상회담에 나타난 리설주의 사회주의 옷차림

리설주는, 북한 여성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북한이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사회주의 옷차림을 토대로 한 패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sup>[사진 40]</sup> 목걸이나 브로치로 패션 포인트를 주는 대신 이 부분에 큰 단추를 장식하는 등 패션 안에서 장식적 요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략적 토대 속에서 조선옷을 입은 리설주의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신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던 북한 패션계에서도 해외 패션 문화가 장마당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입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는 듯 2000년 이후에는 장마당에서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를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에는 중국 액세서리가 장마당 물건으로 등장하여도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기간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신구가 북한 주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장마당에 장사하러 나오는 여성들은 분이나 입술연지를 바르는 등 화장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고객들을 상대할 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고객들에 대한 예의로 화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장신구를 꺼려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장신구에 대한 관습과 태도, 미적 취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신구는 아직 북한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잡지 『조선녀성』, 『로동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 가정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 장신구를 하는 옷차림이 사회주의적 옷차림에 맞지 않다고 배워 온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러한 패션 취향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귀걸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는 것에는 반감이 매우 컸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는 것이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동맹에서는 귀걸이 하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작은 귀걸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미혼들이 했을 경우만 주로 단속하는 등 규제가 점차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리설주가 귀걸이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큰 귀걸이를 한 것은 아니고 살짝 길이감이 있는 귀걸이를 하고 평양으로 온 김정숙 여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그림에도 리설주는 여전히 귀를 뚫지 않았고 귀에 딱 붙는 작은 귀걸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책 당국은 장신구 장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수 산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패션을 단속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취향을 읽어내야 할 소비자로서 그 위치가 변화하게 된 것이 요즘의 상황이라고 분석됩니다.

## 신발

마지막으로 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여성 신발은 하이힐 문화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이힐을 ‘빼또구두’라고 부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오피스룩의 신발도 하이힐입니다. 평균적으로 5cm 정도의 굽을 신지만, 7cm 굽을 선호한다는 젊은 여성들도 많습니다.<sup>[사진 41]</sup>

대학생들도 하이힐을 선호합니다. 조선옷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조선옷에 하이힐을 신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처럼 일상 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지는 않지만, 특별한 날 한복을 입는 경우, 신발 또한 고무신을 신음으로써 패션을 완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패션 코드입니다.

여성들은 왜 불편한 ‘하이힐’을 신을까요? 서양 여성들 사이에

서 하이힐 문화가 유행했을 때, 그 핵심에는 ‘여성다움’이 있었습니다. S라인 강조와 8등신이라는 미의 기준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힙라인이 위로 올라가면서 S라인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하체 길이가 길어지면서 신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얼



사진 41 하이힐을 신은 북한 여성

굴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신체 사이즈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져 8등신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기준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여성들은 기꺼이 발의 불편함을 감수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성의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을 금기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이 북한 여성의 신발 문화를 대표한다는 것은 ‘하이힐’이 ‘여성다움’을 상징하는 패션코드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합니다.

편하게 신는 여성용 신발로 ‘편리화’가 있습니다. 발등이 드러나는 모양의 신발을 말하는데, 신고 벗을 때 편리하다고 해서 ‘편리화’라고 불립니다. 편리화는 여성 신발이고, 대부분의 북한 남



사진 42 라선시 피해복구 전투를 현지도하는 김정은



사진 43 신의주공장에서 제작한 편리화와 운동화



사진 44 류원신발공장이 생산한 다양한 신발

성들은 편리화 대신 운동화를 신습니다. 편리화는 외출할 때 신을 구두를 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18일 『로동신문』 1면과 2면에는 당시 수해피해가 있었던 라선시를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이 실렸습니다.<sup>[사진 42]</sup> 당시 이 사진이 북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된 이유는 그가 신고 있었던 신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김정은이 인민들이 주로 신는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도시 사람들은 주로 구두를 신지만, 그 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신발을 선호합니다. 이때 남성들이 주로 신는 신발은 운동화이고 여성들은 편리화를 신습니다.<sup>[사진 43]</sup> 이 운동화는 우리가 신는 캔버스화처럼 천으로 만들어진 운동화이기 때문에 가죽

으로 만든 운동화보다 가격이 싸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입니다. 특히 신의주공장은 북한 내에서 질 좋고 세련된 제품을 만든다는 평을 받는 공장입니다. 김정은의 이런 연출된 모습은,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풍모를 신비화시키지 말라”<sup>4</sup>로 대변되는 자신의 이미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동시에 신의주 신발공장에 대한 신뢰를 들어냄으로써 마케팅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대부분 천으로 된 운동화를 신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뛰어 놀고, 또 많이 걸어야 하는 북

4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 『조선중앙통신』, 2019.3.6.



사진 45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 개막>  
북한의 신발 전시회



사진 46 원산구두공장 전시장

한 학생들이 운동화를 신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남학생들은 교복에 운동화를 신는데, 여학생들은 교복에 비닐신이라 불리는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닐신(혹은 비닐구두)’이란 천을 염화수지로 피복하여 만든 인공가죽으로 제작된 구두인데,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비닐처럼 보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경공업 분야 육성정책과 더불어 신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sup>[사진 44, 45, 46]</sup>

리설주도 항상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신은 신발 중에는 구두 앞코 부분이 오픈된 구두를 신은 모습도 보입니다.<sup>[사진 47]</sup> 발가락이 드러난 신발은 김정일 시대에는 권장하지 않던 신발이었는데, 리설주 패션을 통해 이제는 세련

된 신발 디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sup>[사진 48]</sup>

앞에서 보았다시피 대학생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5cm 굽을 많이 신기는 하지만, 7cm 굽을 신는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킬힐뿐만 아니라 구두 앞부분에도 굽을 넣어 뒷굽까지 연결하는 ‘웨이힐’을 신은 여성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도 새로운 변화입니다.<sup>5[그림 49, 50]</sup> 웨지힐은 그 높이가 높다 할지라도 다른 힐에 비해 발이 편안합니다. 굽이 앞부분부터 뒤까지 쭉 이어져 발을 넓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힐을 신으면, 키가 커지며



그림 47 오픈토  
스타일을 신은 리설주



그림 48 힐과 양산으로 멋을 낸 북한 여성

5 보통강신발공장 리미옥 지배인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조선신보, 2014.7.30.)



사진 49 발가락이 드러나는 웨지힐을 신은 여학생



사진 50 편리화를 신은 여성들 사이로 웨지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

얻는 신체 비례의 변화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는 욕구가 웨지힐에 대한 금기를 풀었고, 이는 장마당 경제를 통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일련의 상황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ORTH KOREAN SOCIETY**  
in Fashion & Makeup

---

# 북한의 화장법

PART

3



PART

3

## 북한의 화장방법

### 화장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의 여성들은 화장이 멋이나 부리기 위한, 자기 혼자만을 위한 걸치레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가정의 꽃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자신을 도덕적으로도 수양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 자기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때와 장소, 환경과 조건에 맞게 화장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하고 다녀야 한다.”(평양연극영화대학 학사 오동호, 「화장과 도덕」, 『조선여성』, 2005.10. 42쪽.)

‘화장과 도덕’이라는 제목하에 쓰인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가 여성에게 화장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왜 북한 사회가 여성들에게 ‘화장’과 ‘도덕’이라는 단어를 연관시키고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앞의 글을 보면, 여성은 개인의 욕망이 아닌 집단과 사회 그리고 가족을 위한 ‘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이 ‘꽃’이라는 단어로 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와 가정의 ‘꽃’이 되기 위해 충실히 ‘화장’하는 행위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됩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는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우리가 북한 패션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그 여성성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됐고, 짧은 치마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남성에게 여성성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취향의 적극적 발현은 팜프파탈 이미지로 읽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화장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레절로서 사회의 도덕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 몸거름새도 단정해야 하지만 얼굴화장을 잘하기 위한데도 늘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 환경과 조건에 맞게 화장을 잘하는 것은 여성



의 지적정도와 문화정서적인 수양정도를 표현한다. ...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하고 다닌다면 정신도덕적 풍모가 훼손되게 된다. ...”(오동훈, 「화장과 우리생활」, 『로동신문』, 2005.8.7.)

이에 따라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권장되는 ‘사회주의적 화장’을 하는 ‘참한’ 여성 이미지는, 밝은 피부에 연한 화장을 하고 눈 라인을 선명하게 하는, 자연스럽고 단정한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진 51, 52]



사진 51 사회주의적 화장(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외국문출판사, 2018.4.)

“얼굴화장은 소박하고 자연미가 나게 연하게 해야 한다. 화장을 진하게 하면 얼굴피부가 요구하는 자외선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얼굴화장을 할 때 입술연지를 너무 진하게 바르지 말아야 한다. 향수를 칠 때 주의해야 한다. 향수를 지나 많이 치면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피부에 향수를 직접 친 다음 햇빛을 쬐이면 아주 나쁘다. 그러므로 향수를 옷에 적당히 치는 것이 좋다.”(「화장을 할 때」, 『조선여성』, 2008.8. 22쪽.)

2008년도 「화장을 할 때」 기사를 보면 연한 화장과 더불어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진 52 화장을 하고있는 북한 여성

데 향수를 많이 사용하면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향수를 뿌린 다음 햇빛을 보면 아주 나쁘다든지 등의 표현을 통해 이 시기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수의 질이 위생적인 면에서는 아직 많은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보면 북한에서 권장하는 화장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갈 때에 피부의 색깔에 맞게 얼굴바탕색과 분, 눈과 입술, 볼색 화장품을 선정하고, 밝고 연한 부드러운 색조로 자연미가 나타나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인품도 돋구게 된다. … 방안에 있거나 작업할 때에는 … 고상하고 부드러운 색조로 자기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화장을 연하게 하여야 한다. … 화장을 함에 있어서 얼굴바탕색과 분을 얼굴피부색에 맞게 쓰고 얼굴전반에서 눈이 살아나게 속눈썹과 눈선, 눈등화장을 섬세하고 선명하게 하며 눈썹을 눈형태에 어울리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려야 한다. … 민족적 감정과 기호에 맞지 않게 천하고 인위적인 감이 없는가, 일하는 과정에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정상적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제 때에 바로 잡는 것 등은 화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오동훈, 『화장과 우리생활』, 『로동신문』, 2005.8.7.)

이 글에서도 역시 화장과 ‘인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은 북한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연하고 부드러운 색조 화장과 선명한 아이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원하는 화장법은 밝고 선명하게 화장하되 얇게 발라 젊어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하고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강조하다 보니, 북한 화장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얀 피부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분크림’이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발라서 하얀 얼굴을 표현하는 화장법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분크림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비크림 정도 되는 커버력을 통해 피부결을 정리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화장품입니다. 이를 이용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얼굴 피부를 하얗게 하는 것이 북한 여성들이 가장 즐겨하는 화장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크림을 잘 바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터득해야 할 덕목이 됩니다.

“분크림을 무턱대고 두껍게 바르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표정이 달라질 때마다 금이 가기 때문에 도리어 주름이 더 눈에 띄기 때문이다. … 분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서 주름이 나타나지 않게 화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얼굴 피부에 살결물을 충분히 바르고 보통크림을 잘 바른다.(분크림을 바르는 부분에는 꼭 크림을 발라야 한다.) 2. 분크림을 연하게 바른다. 3. 눈과 눈썹은 환하면서도 선명한 색으로 밝게 그려준다. 어두우면 침침한 감을 주기 때문에 환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 4. 입술은 될수록 밝은 색으로 택하고 입술륜곽을 선명하게

그리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화장을 하여야 시간이 지나도 주름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젊은 인상을 준다.”(『얼굴의 잔주름이 나타나지 않게 화장하는 방법』, 『조선여성』, 2004.1. 51쪽.)

2000년도에 들어와 장마당을 통해 화장품 공급이 충족되면서 여성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화장품 유통구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북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장품이란 주로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들이라 피부 착용감이나, 흡수율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특히 피부색이 많이 칙칙해진 중년 여성들이 화장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미백을 선호하다 보니, 분크림을 많이 발라서 하얀 얼굴을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자 그러한 화장법의 문제점들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 하얀 얼굴에 대한 로망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분크림이라고 하는 크림을 바릅니다. 이는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표백크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위에 흔히 ‘보브분’이라고 하는 파우더를 바르고 입술에 입술연지(립스틱)를 바릅니다. 입술에 바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발색을 선호합니다.

하얀 피부에 대한 로망은 10대 연령층에서도 표백크림을 유행시켰고, 20대 이상에서는 미백효과가 있다는 ‘돼지팩’ 제품이 유행하기도 하였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합니다. ‘돼지팩’이란 ‘돼지껍질로 된 팩’을 말하는데 주로 중국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돼지껍질에 콜라겐이 많아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북한 여성들은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호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아래와 같은 기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여 주목됩니다.

“일부 녀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만 때와 장소, 환경과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화장을 지내 밝게 또는 어둡고 천하게 하거나 눈과 입술, 입을 인위적으로 진하게 그리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양식에도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몰상식한 현상이다.”(평양연극영화대학 학사 오동호, 「화장과 도덕」, 『조선여성』, 2005.10. 42쪽.)

북한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어둡게, 그들 표현에 의하면 ‘천하게’ 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한 화장을 ‘천하다’고 해석함으로써, 그런 화장을 한 여성을 ‘도덕적으로 몰상식한’ 여성으로 낙인찍는 이러한 평가는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천하다고 판단한 진한 화장의 정도는 남북한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죠.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장마당에는 빨간 립스틱과 파란 아이새도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입술은 선명하게, 눈썹은 진하게 하는 화장법이 유행 추세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각진 눈썹 화장법에서 각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그리는 눈썹 라인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다양한 중국 화장품의 유통과 한류의 영향 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북한 당국은 앞의 기사를 통해 화장은 개인적 행위이기에 앞서 사회적·도덕적 기준에 맞춰야 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장마당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품을 유통하는 공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대부분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 장마당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었고, 화장품 판매뿐만 아니라 타투와 같은 미용 서비스도 이곳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즈음부터 ‘장마당’을 통해 물건이 유통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미용에 대한 욕구도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망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존재하였던 것인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화장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1900년대에는 ‘크림’이나 ‘분’ 정도만 바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장마당에 중국산 화장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은 점점 색조 화장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크림, 빼아스(베이스), 분(파우더), 눈썹먹(아이브로우), 구홍(립스틱)” 등 다섯 가지가 화장의 기본이 되어갔는데요. 우리의 콤팩트 화장품 같은 ‘돌분’을 사용하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돌분은 기존의 분크림보다 피부 커버력이 높습니다. 그 덕분에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화장이 진해지게 됩니다.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미용 관련 부분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이전보다 느슨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노력하여 번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화장은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진 53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의 표지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이는 북한 당국이 ‘천한 화장’이라고 금기했던 색조 화장을 과감히 시도하게 하였고, 이것이 장마당 안에서의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외국 화장 문화를 ‘부르조아 퇴폐문화’로 인식할 것인가, 세련된 문화로 인식할 것인가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한류를 비롯한

해외 배우들의 화장법을 세련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비록 북한 사회의 금기라 할지라도 이를 따라 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북한 경제가 재정비되면서, 화장은 개인적 행위이기에 앞서 사회적·도덕적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화장법’은 장마당으로 유입된 화장 유행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2017년에 발행된 책인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는 색조 화장에 대해서도 자세



사진 54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37쪽

히 설명하고 있어서 변화된 화장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53, 54]

“고유한 미는 명암화장으로”라는 챕터에서는 ‘수정 및 명암도량’ 화장품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턱선 등 얼굴 외각 부분에는 어두운 명암을 주고, 코의 등선 등에 밝은 톤을 주고, 볼터치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는 화장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라는 서술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에서는 <골상학적 특징에 따르는 화장방법의 표준화 결정>이라는 표를 통해 얼굴형을 ‘답알형, 삼각형, 네모

골상학적 특징에 따르는 화장방법의 표준화 결정

얼굴형	둥근우리 윤곽우리	명암우리 밝은색비광우리
답알형		삼각형
네모형		진형
둥근형		역삼각형
납적반형		용형

사진 55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57쪽

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넓은형, 립형'으로 나누고 각 얼굴 골격의 특징에 따라 어느 부분을 어둡게, 어느 부분을 밝게 화장해야 하며, 볼터치는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진 55] 이는 이전에 '하얀 얼굴'을 강조하던 화장법에서, "밝고 어두운 대조를 주어 립체감을 조성"<sup>6</sup> 하는 방식으로 화장법이 변화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사진 56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71쪽

또한 "매혹적인 눈화장" 챕터에서는 "눈등주기는 보색관계에 있는 색들을 2가지 이상 써주어도 된다."라고 화장법을 소개하며, 사진을 통해 보라색, 초록색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sup>7</sup> [사진 56]

장마당을 통해 금기를 깨고, 화장이라는 행위를 통해 개성을 드

6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53쪽

7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917, 71쪽

러내기 시작한 북한 여성 각 개인의 취향과 욕망은 소비시장의 품목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은 북한 화장품 생산 품목의 변화를 추동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화장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하는 전략 등을 통해 북한 화장품의 고급화 전략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색조 화장품 또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화장품들은 북한 인민들이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비싸서 평범한 인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0년 이후 북한 주민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 '화장대'입니다. 결혼 할 때 꼭 선물받고 싶은 물건에 '화장품'이 들어가고, 신혼집을 꾸밀 때 꼭 장만하고 싶은 물건 중에 화장대가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 북한 화장품 산업 현황

북한의 시장화는 생산보다는 유통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유통이 시장을 추동하였고, 그 중심에는 장마당이 있었습니다. 뷰티 산업도 장마당이

라는 유통 구조를 통해 소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이러한 소비를 내수 경제와 연동시키기 위해 화장품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농업, 수산업과 더불어 경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경공업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분을 일컫는데 방직공업, 피복공업, 신발공업, 화장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적인 인민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분야에서조차도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김정은은 특히 이러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분야의 향상을 위해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핵심으로 하여 생산의 활성화, 제품의 다종화·다양화 및 질 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올 것을 주문합니다. 북한은 대북제재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원료의 국산화를 통해 자체 생산한 자국의 생산품으로 인민들이 생활을 하는 정책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입병 근절과 차단’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니, 장마당 등을 통한 수입 화장품이 북

한 화장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신발·화장품 등은 2000년대 이래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의 북한 내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추세였고, 장마당에서 북한산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떨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국산품을 외면하던 추세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화장품 공장에서는 제품의 다양화, 원료의 국산화, 생산 공정의 기계화·자동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 북한 화장품 분류

북한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은 북한 내에서 기초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분장용 화장품, 머리카락, 세척, 구강, 향수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누, 샴푸, 치약 등 위생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분류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화장품법 2조’에 따라 화장품을 기초화장품, 기



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기초화장품이란 살결물(스킨), 물크림(로션), 기름크림(나이트크림), 영양물(에센스) 등을 말합니다.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노화 방지, 햇빛 방지, 여드름 방지, 주근깨 제거 등과 관련된 제품이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분장용 화장품’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중 얼굴 전체의 피부화장에 해당되는 것을 ‘밀화장품’이라고 부릅니다. ‘밀화장품’에는 분크림과 고체분, 수정도량과 명암도량이 포함됩니다.<sup>[사진 57]</sup> ‘밀화장품’ 중 분크림과 고체분은 남한에서 쓰는 파운데이션 종류



사진 57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37쪽

와 그 위에 바르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도량’은 “얼굴의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과 같은 얼굴의 잡티들을 수정해 주기 위한 재료”이고, ‘명암도량’은 “밝고 어두운 색으로 얼굴에서 부족점을 눌러주거나 살려주어 얼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sup>8</sup>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분별 화장품에는 눈등분, 입술연지(립스틱), 볼연지(볼터치) 속눈썹막(마스카라), 미안막(마스크팩)<sup>[사진 58]</sup>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어제품 즉, ‘머리카락용’은 머릿기름, 머리카림, 머리물 영양제(린스), 파마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고, ‘세척용’ 화장품으로는 화장비누, 머리물비누(샴푸), 세척크림을, ‘구강용’으로는 치약, 입가심약(가글제품)을, ‘향수’로는 사람용, 침구용, 옷용, 방안용(방향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58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외국문출판사, 2018.4.

8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36쪽



## 화장품 생산

### • 주요 화장품 공장 및 생산품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 공장은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5년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화장품 생산능력 향상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시할 때도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매체들도 이 공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59 신의주화장품공장, 『누구나 즐겨 찾는 봄향기 화장품』 평양출판사, 2019.4.



사진 60 봄향기 화장품, 『누구나 즐겨 찾는 봄향기 화장품』 평양출판사, 2019.4.

### •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신의주시에 위치해 있는 북한 최초, 최대 규모의 화장품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9년 9월 23일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화장품의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1987년 이후부터 화장품이 본격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봄향기’와 ‘금강산’이라는 브랜드로 100여 종의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외에도 치약과 비누 등을 생산하는 화장품 공장입니다.

[사진 59, 60]

김정은이 특별히 ‘봄향기’ 브랜드 화장품의 품질을 호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브랜드는 현재 북한 화장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sup>9</sup>

9 조선중앙통신, 2018.7.1

‘봄향기’는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화장법 보급실’도 운영하면서, 고객별 피부유형 및 얼굴별 화장법을 소개하고, 피부상태에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별 피부상태를 측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개별 맞춤형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홍보 방식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판매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 • 평양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은 평양에 있는 화장품 공장으로서 2017년 건축 완공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화장품은 ‘은하수’ 브랜드 화장품으로 300여 종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도 치약, 세숫비누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sup>[사진 6]</sup>

은하수 화장품은 북한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기초화장품 외에도 남성용 화장품, 어린이용 화장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성인삼 추출물, 알로에, 프로폴리스, 살구기름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생산한다고 선전하



사진 6 평양화장품공장 은하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외국문출판사, 2018.4.

고 있고, 갑각류 껍질에 들어 있는 키토산이 다량 함유된 샴푸와 로열젤리 비누 등도 생산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 • 금강산합작회사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 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맞춰 각 화장품 공장에서는 명품 브랜드 전략을 세웠는데, 금강산합작회사는 “다품종소량생산의 경영방식” 전략을 세웠다고 북한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sup>10</sup>

10 「누구나 즐겨찾고 선호하는 금강산 화장품」 『조선의 오늘』 2019.5.17.



사진 62 금강산합작회사 금강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외국문출판사, 2018.4.

대부분의 북한 화장품이 그러하듯이 ‘금강산 화장품’에도 개성고려인삼을 비롯한 천연식물들이 첨가되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금강산 화장품’은 이외에도 나노기능성 재료들을 첨가하여 명품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62]

북한 내부에서 ‘금강산 화장품’은 특히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가 높아서, 신혼예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sup>11</sup>

11 「우리 인민의 피부특성과 기호에 맞는 금강산 화장품, 명제품으로 인기」, 『메아리』, 2019. 10.21.

## • 모향화장품공장

모향화장품공장은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경 운영을 시작하여 ‘미래’ 브랜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래’ 브랜드 화장품은 노화 방지, 주름 방지, 미백효과 등 기능성 화장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 화장품은 평양 광복지구상업중심, 평양제1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북중합작 회사인 ‘모향천호합작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용을 중심으로 마케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화장품은 ‘봄향기’ 독점 체제였다가, 최근 브랜드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향기’는 북한 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가 현대적인 첨단 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시작하면서 브랜드 간 경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현재는 ‘금강산’과 ‘미래’ 등 브랜드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화장품은 천연 추출물을 주원료에 함유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 것이 고려인삼입니다.

주요 화장품 공장 내부에는 ‘연구실’을 두어 제품 개발 및 관리, 판매 전략 등을 세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의 적

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듯 김일성종합대 출신 등도 연구사로 들어와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은 브랜드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화장품 제품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구두, 주류, 식료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봄향기’, ‘금강산’, ‘은하수’, ‘미래’ 화장품이 대표적인 브랜드이며, 원산구두공장의 ‘매봉산’ 구두, 평양양말공장의 ‘철쭉’ 양말, 락랑피복공장의 ‘갈매기’ 내의, 평양피복공장의 ‘은하’ 기성복, 평양향료무역회사의 ‘옥류’ 향수 등 각 상품 종류별로 대표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브랜드 중심으로 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마케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인데 북한 사회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전국화장품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와 일용품공업성 공동주최로 2019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역전백화점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수십 개 공장에서 930여 종 13만 7,000여 점의 화장품, 80여 종의 향료제품이 출품되었고, ‘화장품산업의 발전추세와 발전방향’, ‘<봄향기> 노화 방지용 제품 개발’, ‘자외선 방지 화장품의

개념과 개발동향’ 등 60여 건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sup>12</sup> 그중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금강산합작회사, 묘향천호합작회사, 나리화장품기술교류사 등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다종다양하고 질이 높은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로동신문』이 전했습니다.<sup>13</sup>

이러한 움직임은 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욕구가 북한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북한 외부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화장품전시회에서 보듯이 북한 내부의 소비시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지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장품의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유행을 계속적으로 창출해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개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사회주의적 화장’ 양식과의 긴장이 어느 방향으로 끌려갈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12 「전국화장품전시회개막」, 『로동신문』, 2019.11.12.

13 「전국화장품전시회폐막」, 『로동신문』, 2019.11.19.

## 북한의 패션과 미용을 살펴봄

지금까지 북한의 패션과 미용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북한 사회에도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옷을 세련되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언급은 이 사회 내부에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옷차림과 도덕성을 연결시키며 ‘사회주의적 옷차림’을 강조했던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물론 잘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수가 매우 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다들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장마당 등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인민들 중 패션과 차별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옷을 세련되게 입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픈 사람들 또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들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사진 63 북한의 패션쇼 모습, 달라진 소비문화

‘전국조선옷전시회’, 즉 패션쇼가 북한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북한 사회에도 패션위크에 무대를 워킹하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63] 이제는 이러한 공식적인 패션쇼에서도 여성의 다양한 바지 차림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상품에 이러한 패션 위크를 결합시키는 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가 조금씩 변화한 것도 북한 패션과 미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 유통의 핵심 일꾼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가족 생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삶을 매우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깨쳐 나오면서 당당히 장마당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주인답게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패션이나 화장 등에 존재했던 금기를 깨나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고, 이는 장마당 상품의 소비와 매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은 시대는 이러한 변화된 욕망과 소비를 내수산업의 증진으로 연결시키려 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느 선에서 기존 담론들과 규범안으로 수렴될지, 우리는 더 긴 안목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3월 8일 국제부녀절을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국제부녀절에 ‘세대주’라고 불리는 남편들이 아침 밥상을 차리고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서도 ‘3.8 국제부녀절’을 맞이하여 부인에게 줄 물건을 사러 온 북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에 맞춰서 화장품 매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을밀대 피복전시장에도 여성 옷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은 마케팅적인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뉴스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내는 전략은 우리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기존 북

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권리 신장은 때때로 소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패션과 화장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취향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또는 내가 지금 당신과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과 화장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취향과 욕망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소비 산업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패션과 뷰티 산업의 변화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고문헌

### ● 저서

- 길수미,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와질 수 있다』,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 김석향·박민주, 『“북조선 여성” 장마당 뷰티로 잡자던 욕망을 분출하다』,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9.
- 김성철 편, 『누구나 즐겨 찾는 봄향기 화장품』, 평양, 평양출판사, 2019.
- 남성욱·채수란·이기영,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한울엠플러스, 경기도 파주, 2017.
- 쓰지하라 아스오 저, 이윤혜 역, 『문화와 역사가 담긴 옷 이야기』, 서울, 혜문서관, 2017.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9.

### ● 논문 및 기사

- 오동훈, 『화장과 우리생활』,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2005.8.7.
- 곽노경, 『바지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서울,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4.6.
- 기자, 『우리 인민의 피부특성과 기호에 맞는 금강산 화장품, 명제품으로 인기』, 『메아리』, 평양, 2019.10.21.
- 기자,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봄향기 화장품에 깃든 사랑』,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9.3.
- 기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겨울철 옷차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6.12.
- 기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결혼식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자』,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6.7.
- 기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여성들의 나뉜 옷차림』,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11.8.
- 기자, 『누구나 즐겨찾고 선호하는 금강산 화장품』, 『조선의 오늘』, 평양, 2019.5.17.
- 기자, 『라선시 피해복구전투를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2015.9.18.
- 기자, 『얼굴의 잔주름이 나타나지 않게 화장하는 방법』,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4.1.

- 기자, 『전국화장품전시회개막』,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2019.11.12.
- 기자, 『전국화장품전시회폐막』,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2019.11.19.
- 기자, 『화장을 할 때』,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8.8.
- 김치근,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2015.11.26.
- 김향숙, 『옷차림 레절을 두고』,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3.8.
- 리정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여름철 옷차림을 다양하게 하자』,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6.6. 44쪽.
- 리효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결혼식에서 낡은 습성을 없애자』,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4.9.
- 박철, 『옷차림을 편리하고 보기 좋게』,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2009.8.9.
- 오동호, 『화장과 도덕』,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5.10.
- 장혜원, 『호화 결혼식 등장한 북한, 빈부격차에 ‘탈랑밥’도 여전』, 『매경프리미엄』, 서울, 매경미디어그룹, 2018.6.1.
- 정창현, 『신세대 패션의 변화, 남과 북이 가까워졌다』, 『통일뉴스』, 서울, 통일뉴스, 2013.09.16.
- 최명숙,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우리 식의 옷차림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5.9.
- 최정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옷차림을 우리 식대로 하자』,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4.12.

### ● 영상

- 『(웃 본보기) 멋 : 세계절옷차림-조선옷』, 평양 고려전자출판물사 제작, 영상자료, 2007.
- 『겉멋이 들어』, 평양,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988.
- 『류원신발공장』, 『조선중앙통신』, 평양, 2017.10.19.
- 『가을철 전국 신발전시회 개막』, 『조선중앙통신』, 평양, 2019.10.19.
- 『원산구두공장』, 『조선중앙통신』, 평양, 2018.12.3.
-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 『조선중앙통신』, 평양, 2019.3.6.

#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

---

지은이 박계리  
발행 2020년 12월 7일  
발행처 통일교육원  
담당 이향아  
주소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14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중앙포토, 북한자료센터, (사)평화문제연구소, KBS,  
노동신문, 연합뉴스, 김대중평화센터,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선중앙통신, 민족21, 개인소장(최재영)  
사진 저작권 관련 문의 :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